

Robert Yarbrough 박사, 목회서신, 세션 2, 디모데전서 1장

© 2024 로버트 야브로(Robert Yarbrough)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Robert W. Yarbrough 박사와 목회서신,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를 위한 사도적 지침에서 그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모임, 디모데전서 1장.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목회서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서 내가 사용할 방법에 대해 한 마디 말하고 싶습니다.

보고 말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2단계 방법입니다. 본다는 것은 관찰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보이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소그룹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한 구절을 읽은 후 사람들에게 그 구절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그 구절에 있는 어떤 것과 연관시킬 것이고 실제로 그 구절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느끼는 것, 믿는 것, 또는 그 구절에 있는 어떤 것을 기초로 생각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절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성경책과 같은 역사적 유물에 있는 어떤 것을 잘 관찰하려면 종종 훈련이 필요하고 때로는 기술 훈련이 필요합니다. 원본 원고. 우리는 문서가 작성된 그리스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어 번역의 이면을 실제로 살펴보려면 그리스어를 배운 사람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문서가 왜 작성되었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언제 작성했는지, 왜 작성했는지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이 구절이나 이 장이 전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관찰하고 싶습니다. 저는 텍스트의 일부를 읽고 일부를 만들 것입니다. 진행하면서 의견을 제시한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결론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바탕으로 관찰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우리는 추론을 도출할 것이며 나는 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때와 거기에 충실한 결론과 바울이 그 당시 디모데에게 지금 여기를 위해 쓴 내용을 진술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로 뛰어들어 적용해 보기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화를 위해 우리가 진행하면서 약간의 색상 코딩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장 제목을 녹색으로 표시하고 어떤 단어는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특정 단어가 있고 우리가 관찰한 내용, 즉 우리가 본 것을 말할 때 두 번째 단계가 상자 안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행하면서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이 말을 읽습니다.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목회서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한 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말, 그리스도를 위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의 생각과 디모데에 대한 그의 권고, 더 나아가 교회에 대한 그의 권고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투영에서 이 단어들을 누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거기에는 단 하나가 있으므로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일종의 부드러운 확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 단어에 의해 너무 밀접하게 묶여 있고 두 가지 다른 출처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명확한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스는 하나뿐이므로 단일 전치사 from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는 세 가지 사항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나의 참된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말하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 가지 경우 모두 나의 참된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학에서 구약성서

교수님이 나에게 언약의 언어로 인식하도록 가르쳐 주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아버지처럼 여기시는 언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비인격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위층의 노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신은 일종의 배후에 있다. 미국에는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라는 일종의 고전 영화가 있는데, 오즈의 마법사 마지막 부분에서 마법사는 실제로 커튼 뒤에 있는 커다란 기계의 레버를 당기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강력한 힘이 있고 실제로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아담과 하와, 에녹,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확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를 맺어 구원하시고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여 사슴이 물 찾기를 갈망함 같이 내가 주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종교가 아름다운 점은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신성한 아버지 형상이셨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 인간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여기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서신에는 놓치기 쉬운 관계적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자는 형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무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고 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교회에 다닐 수 있고, 사람들은 가끔 평생 교회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개인적이시지 않습니다.

나는 나에게 매우 가깝고 소중한 사람을 알고 있으며 그녀는 잘 알려진 기독교 종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1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녀에게 개인적인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녀는 종교 학교를 다녔고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십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삼위일체를 믿었고 성경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꿈을 꾸었고 그 꿈에서 그녀는 자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자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녀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어났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겁에 질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그녀에게 말씀하셨고 그녀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자신의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주되심과 자신의 삶 속에서의 개인적인 임재에 대한 교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에 자신을 열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바울과 그의 참 아들 디모데의 관계적 역동성을 봅니다. 목회자의 눈에 띄는 단어 중 하나는 칼로스(kalos)인데 이는 선을 의미하지만 아름답고 정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처음 두 구절에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가 공유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들은 이 편지에서 몇 가지 다른 관찰 사항을 다룰 것입니다.

우선,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가톨릭교의 교황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교황은 교회의 모든 일을 총괄합니다. 사도는 그가 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국 영어에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귀하의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싶다면 서류에 서명하면 그들이 귀하를 대신하여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들은 당신을 대신하여 협상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위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지도력 아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NIV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한다. 그러나 헬라어로 이 단어는 카타(kata)인데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지하다, 승인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가 디모데를 책망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은 다름 아닌 나에게 맡겨진 일임을 암시적으로 디모데에게 말함으로써 시작한다. 나는 자유계약자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교황의 권위자로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인간으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더하면 그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겸손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언급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전치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특히 디모데의 상황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내 생각에 그는 디모데에게 말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사역에 얼마나 많은 희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말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때로는 사역에서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고, 피곤해서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압박감에 지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일에 지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원하는 모든 일을 완수하는 데 매일 필요한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디모데 바울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는 디모데가 아닙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와 성령을 통해 그를 다루신다는 것은 명령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종종 십자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미래,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그것이 모두 우리의 희망입니다.

때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기서 그는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신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서신 전체에서 단지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매 시간, 날마다 재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희망은 단지 인간의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나는 또한 여기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세 번 봅니다. 목회서신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거의 항상 그는 그 두 단어를 순서대로 언급합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무엇을 뜻하지 않으시는지에 관해 많은 글이 쓰여졌습니다. 나는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동료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용하여 지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용어를 세상의 희망이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라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관점에서 매우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세상의 소망은 약속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장차 올 왕,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밖의 많은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분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이고 사절이며 그와 디모데와 그들의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시지만 예수님이나 예슈아이십니다. 그는 헬라어로 여호수아(Joshua) 또는 예수(Jesus)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로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저 나사렛 사람이니라.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디모데가 의심했거나 의심하고 있었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디모데가 어려움에 직면했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메시아닉 유대인이 된 가족의 첫 번째 세대에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나 오늘날이나 유대 전통에서는 사람들이 예수가 구세주,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유대 민족의 희망이라고 말할 때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반응의 일부는 당신이 더 이상 가족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누구인지 배신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백성의 확신을 배반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그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였으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당연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디모데는 이교의 반대와 유대인의 반대 때문에 바울이 알고 있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디모데가 그를 받아들인 바로 그 분이심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최고의 남자나 여자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시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을 확인하기 위해 시편의 내용을 반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이 어떤 극단이 우리를 인간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 축소시킬 수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서 그는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성 속에서 그를 지켜주시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황폐하고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사역과 삶은 우리에게 그러한 느낌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한 아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는 약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통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기서 세 번째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분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원하십니다. 나는 이것이 디모데가 희망을 붙잡고 그의 사역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짧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선한 일이나 구원에 관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고 어쩌면 당신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활성화를 분석하면 그 모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모습을 50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우 깊은 구약성서의 반향과 배경을 지닌 매우 포괄적인 세 가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아마도 헤세드를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친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돈 없이 와서 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와서 받으라. 그것은 그들이 얻을 수 없는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기를 너무나 열망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마음에서 그분께로 돌이키면.

자비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로 때로는 은혜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그것이 좀 더 긍정적인 능력이며 자비는 그분이 당신의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실 의지와 능력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분과 더 구체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니 자비로우십니다.

그렇다면 평안은 구약의 샬롬에 여러 번 나오는 용어로, 하나님의 축복의 전 범위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구원이고, 평안이며,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며,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것이며, 우리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확장하고 적용한 그분의 약속입니다.

티모시는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는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에게서 편지를 쓰는 것은 그가 권위 아래 있는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 분이 하나이신 참으로 한 개인 하나님이신 개인들의 위임 아래 계십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존재합니다.

따라서 NIV를 보면 또 다른 제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제가 이 서신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단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영어 번역인 NIV 성경을 사용할 때 보게 될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어 번역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목회 서신의 구조에 대한 기술적 합의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것들의 개요를 어떻게 설명하고 분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나 주석에는 목회서신의 개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의 제목을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거기 에베소에 머물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시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전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특정 단어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특정 단어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유입니다. 이는 문법적으로 명령형이거나 명령형이므로 그리스어에서는 명령형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본문이 암시하는 바가 사실상 사실인지 여부는 디모데나 그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구약과 신약의 이 종교의 관계적 구성요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친밀감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적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우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관계 때문에 행동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윤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랑과 관계뿐 아니라 윤리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디다스칼리아나 가르침에 관한 교리에 관한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x를 우리의 믿음이나 믿음의 축으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xyz 다이어그램을 만듭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우리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y축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은 믿었고 당신이 믿는 것을 따릅니다.

하지만 az 좌표도 있습니다. 공학이나 수학에 능숙하다면 이것을 xyz로 그릴 수 있습니다. z는 사랑입니다. z는 헌신입니다. z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복음이 삶에 들어왔을 때, 바울의 삶에 들어왔을 때, 디모데의 삶에 들어왔을 때, 복음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교리를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종교의 일부인 어떤 것을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 당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싶다면 하나님의 지시, 즉 토라를 따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법으로 번역하지만 아마도 그것이 최선의 번역은 아닐 것입니다.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관계가 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특정 사람들에게 명령하라는 명령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르침과 디모데와 바울과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확립된 관계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이제 신화와 족보에 대한 이러한 언급으로 인해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디모데가 직면하고 있는 일 중 적어도 일부에 유대적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는 기독교에서 중요하지만 구약에서도 중요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반박하고 싶다면 다른 계보를 제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기원과 그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화는 당시 이교 세계와 유대 세계 모두에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을 대표하지도 않는 일을 상상하는 유대인의 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좀 더 상상력이 풍부하고 추측이 많은 글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면하고, 디모데가 직면한 상황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신화와 추측과 족보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런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일을 진전시키기보다 오히려 변론을 조장한다고 말합니다. 족보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신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대안적인 이야기의 이익을 위해 성경을 탈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밖의 이야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은 진전됩니다. 예수가 누구일지, 메시아가 어떤 모습을 취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메시아가 성취될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NIV는 이 단어를 “일”로 번역하는데 괜찮습니다. 그 단어는 오이코노미아(oikonomia)이고 마땅한 영어 단어가 없는 단어입니다. 행정이고 집안의 질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이 번성하도록 세우신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관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점에서 그것은 왕국의 개념에 매우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없애고 싶습니다. 그 단어를 조금은 없애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모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가 세상을 위해 계획하신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진전시키는 데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조와 의도를 계획하는 오이코노미아에서 멀어지게 하는 귀여운 일과 이야기를 추측하고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진전시키는 데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의 명령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라"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5절에서 그는 이 명령의 목표를 말하고 그것들을 함께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이지만 저자인 NIV 편집자들이 디모데가 자신이 명령했다고 비난했을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숙한 시작입니다. 관계의 시작입니다. 따뜻한 시작이지만, 티모시가 헤어날 수 없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엄숙하기도 합니다. 이 책임의 목표는 엄격한 것에서 따뜻한 것으로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복음은 참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거짓되지 않은 믿음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의미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곧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명령 관계를 맺는 목적입니다.

이제 바울의 열정은 다음 두 구절에서 표현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로부터 떠나 무의미한 말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신화, 족보, 추측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가 표현한 대로, 우리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교회에 영향을 미칠 만큼 교회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디모데의 명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떠나는 사람들에게 맞서기 위해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복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론가들은 서로 다르지만, 내 생각에는 이들은 유대인 신자이거나 사이비 신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그토록 확신 있게 단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율법은 바르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알며, 또한 율법은 의인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란 것도 압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법의 올바른 사용이 우선 민사적 사용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나라에서는 살인이 범죄이며, 성서에서는 살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가르쳐져 있습니다. 이는 민법의 기초이며 전 세계 법률 시스템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너희가 범법자요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율법의 세 번째 용도가 있는데, 특히 루터는 이 세 번째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종종 여겨집니다. 나는 세 번째 용도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용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함을 받지 말고 구원을 받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지침입니다. 비웃는 자. 오직 그의 기쁨은 율법에 있느니라.” 주님의 인도와 훈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인도를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용도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잘만 사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이 의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범법자와 반역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법에는 이러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불경건하고 죄 많은 불경건한 자들. 그들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이는 자들, 살인자들,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들, 동성애자들, 노예 매매자들, 거짓말쟁이들과 위증자들을 위해 종교적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가장 극악무도한 행위 중 몇 가지를 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신중한 구조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십계명을 살펴보고 십계명과 반향을 일으키는 최악된 행동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느슨한 연관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식별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가장 먼저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심각한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에 대한 범죄가 있고, 많은 경우에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둘째, 우리 모두는 직간접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복음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살인을 그만두었고, 더 이상 살인을 하지 않았고, 살인자가 아닐 만큼 좋은 일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살인자라면 당신은 살인자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불경건한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아무리 불경건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용서는 그들을 용서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 당신의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략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하십시오. 이 규칙을 따르십시오. 그것은 법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규례를 따르면 하나님과 의롭다고 말할 때, 바울은 이것이 복음에 따른 건전한 교리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외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죄의 형벌을 취소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맡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먼저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디모데는 포기해서는 안 되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거기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둘째, 우리는 디모데의 책임이 전적으로 긍정적이고 구원적이라는 점을 관찰합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티모시는 일종의 경찰관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반쯤 화를 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가야 하고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임재가 얼마나 자비로웠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지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멍든 만남도 있었지만 자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한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사랑이 목표인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디모데에게 주신 마음과 양심과 믿음으로 실행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구원적인 메시지입니다.

셋째로, 6절과 7절에 나오는 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독선은 비록 그 방향이 어둡더라도 우리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유혹합니다. 가끔 학생들이 저에게 평생을 헬라어 사전에 바친 이 학자가 정말로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느냐고 묻곤 합니다. 학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왜 성경 연구에 전념합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성향으로 보아도 우리는 다 독선적이고, 남 위에 군림하는 걸 좋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을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더 많은 훈련을 받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우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훈련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서신에 대해 생각할 때 기억나는 John Maysfield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Leon Morris의 주석에서 그 시를 읽었으며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 메이스필드(John Maysfield)는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영국에서 계관시인이었으며 이 시는 매우 짧은 시입니다. 이렇습니다.

단련된 마음이 정직한 영혼을 능가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훈련받은 마음은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고
 하지만 훈련받은 사람의 마음은 너무 얇아
 그들은 온갖 종류의 어둠을 들여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빛을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의심합니다.

그들은 빛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시에는 지혜가 많고 갈 수 있는 방향이 많다는 것을 구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우 모호한 시이지만 요점은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아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관해 다른 사람들을 오도하는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도덕적으로 선할 수 있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는 많은 진실이 있을 수 있지만,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에게 구주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구약의 도덕법이 타당하다는 것을 배우고 상기시켰습니다. 그 구절에서 그는 율법이 오용되지 않으면 선하고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가 모인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유일한 수단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x를 하면 하나님은 y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품삯을 받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다음에는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이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봉사에 대한 단어는 우리가 집사를 얻는 디아코니아(diakonia)입니다. 종종 사역으로 번역되지만 그것은 천한 사역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수행하고 싶은 종류의 서비스입니다. “비록 내가 한때는 신성모독자였으나” 그것은 거룩한 것을 반대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박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가 화를 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내가 모르고 믿음 없이 행하였으므로 긍휼을 입었습니다.”

지난 주말 지역 뉴스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한 교회에서 50대 나이지리아인들이 총에 맞아 불타고 폭발했습니다. 몇 주 동안, 지난 몇 주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분노와 분노는 종종 이러한 장면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나서 폭동을 일으키고 동요합니다. 그런 다음 누군가를 쏘거나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폴의 사진입니다. 그는 폭력적인 사람,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이 집단을 근절시키고 싶었고,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그가 도울 수만 있다면 그 집단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접속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게 풍성히 부여되었느니라.” 그래서 다시 다마스쿠스 길 사건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박해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기독교 메시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9장은 8장 다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그는 스테반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은 매우 긴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격분하여 격렬하게 화를 냈습니다. 돌을 쥌는다면 옷을 다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돌을 쥌었을 때, 어쩌면 추운 날이었을 수도 있고 사울/바울이라는 누군가의 발 앞에 따로 두었던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스티븐의 증인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내가 무지와 불신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이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그에게 실제로 다가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반대에 너무 격렬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꾸었고 그 은혜로 믿음이 왔고 사랑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삶에 가져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제 Timothy가 은행에 가져갈 수 있는 첫 번째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나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전시물 A입니다. 확실히 당신이 기독교인을 죽이면 당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약속된 메시야가 매우 비천한 목적을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나처럼, 십자가에 달린 도둑처럼, 또는 당신이 당신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개개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목할만한 죄인이었지만 바울은 내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기를 기뻐하신다고 썼습니다.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가 많지도 않았고, 존경받지도 못했고, 재능도 없었으며, 아무도 그들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아무도 말할 수 없도록, 혹은 아무도 우리가 해냈다고 말하지 말라고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것이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말했지만 그럴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근거가 없었지만 바로 그 때문에 내가 긍휼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믿고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나에게 그의 인내를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목회서신에는 여러 송영 중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영원한 왕께.” 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부음을 받은 메시아인 크리스트스(Christos)와 실제로 같은 말이지만 구약성서의 메시아는 왕이다. 그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과 그리스의 바실레이아 왕 사상 사이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낸 사람인 왕에게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와 그 아들을 구별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관찰해 보면, 희망이 없는 죄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희망이 당신의 외부에 있다면, 당신의 희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희망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 바깥 어딘가에 계시다면 그것은 당신을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개인별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고 디모데도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그는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로, 그 송영은 디모데의 상황에 대한 이 진술의 규범성을 강화합니다. 하나님은 큰 확률을 사랑하시며 그 확률을 이기기를 좋아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다메섹 도상 이전에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나는 이것이 율법의 하나님, 그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죽이는 하나님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돌로 쳐죽임으로써 이 문제를 진압할 것입니다.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 교회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Timothy의 책임이 갱신되었으며 이는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명령을 준다.” 3절의 명령이 1장까지 이어져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디모데에게 이 명령, 이 명령, 명령을 부여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한 예언을 따라 이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전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는 6장에서 사역은 종종 싸움일 뿐만 아니라 싸움이기도 하다고 언급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명령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라”는 것은 복음 안에 있지만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버렸으므로 내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들은 믿음에서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는 그 중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중에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넘겨주어 가르침을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장을 마무리하기 위해 몇 가지 관찰을

하겠습니다. 첫째, 소명의식이 개인의 사역을 성사시킬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전에 너희에 대한 예언을
 생각나게 하여 디모데로 하여금 어떻게 이 일에 빠졌는지 기억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를 그 일에 부르셨습니다. 흐릿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그림은 디모데가 사도행전 16장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의 초대와 사도직에 함께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예'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디모데의 회심인데, 우리는 그의 회심에서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사람들이 xy & z가 당신에게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왕국에서 위대한 일을 할 운명이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아마도 이력이 있을 것이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말씀하셨을 것이고 소명감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발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감각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그것을 강화하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들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당신을 기억하고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좋은 기회인 동시에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둘째, 사역이 반대되고 심지어 욕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을 수 있으며,
 목회자이건 봉사의 디아코니아 일을 하고 있건 다른 사람을 제자화하는 것이

쉽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자를 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에 따른 희생도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배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배울수록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나는 왜 나 자신을 고문하고 있습니까? 그냥 얽은 곳에 머물면서 더 많은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어때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고 그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게 만들고 싶어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건 힘든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멍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는 Paul이 달콤하고 낙관적이며 즐거운 것처럼 여기에 없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칭찬하는 수사법만 있는 게 아니다. 여기에는 송영에 대한 매우 확고한 찬양이 있지만 본회퍼가 제자도의 대가라고 불렀던 대가에 대한 실제 현실주의입니다.

셋째, 개종자 감소율이 전환자 이탈률을 관찰합니다. 저는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12년 동안 1년에 두 번씩 사역을 했습니다. 12년차에 주요 동역자이자 조직자 중 한 명이 보안요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신고했고 그들은 체포되었으며 그 후 전체 지역의 교회에 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넘게 모두가 자신이 개종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직원이었지만 다른 종교에서 개종했습니다. 그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마음을 결코 놔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배반당할 때 당신은 배반당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복음에 질문하도록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미리 경고를 받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은 또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가르쳐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그것이 의미하는 것 중 하나는 그가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추종자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고 이것이 교회들을 위한 그의 기도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시험하는 선별 대항자 사탄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경쟁적인 신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 외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장소에서, 대부분의 방법으로 사탄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제지하지만 그리스도인도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유혹을 받는 것은 사탄이요, 악이요, 하나님이 직접 유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감독 없이는 유혹이 계속되지 않는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후메내오와 알렉산더에게 하나님의 선별하는 시험꾼의 사역을 맡기고 그들이 입술을 짝 쥐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바울은 내가 이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 그의 육체는 멸하고 그의 영이 주의 날에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 동안 그들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으며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들에게 맞서야 합니다.

이것이 1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Robert W. Yarbrough 박사와 목회서신,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를 위한 사도적 지침에서 그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모임, 디모데전서 1장.